


#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만원의 행복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p>'만원의 행복!'</p> <p>저희 무등산생태탐방원 직원들은 이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질문은 '당신에게 행복은 무엇인가'라는 간단하지만 어려운 질문이었죠. 여러 대답이 나왔습니다.</p> <p>"돈!"</p> <p>"생각과 행동의 자유!"</p> <p>"편한 사람들과 맛있는 거 먹을 때 제일 행복해요!"</p> <p>"멋진 풍경을 볼 때!"</p> <p>"욕구가 완전히 채워질 때"</p> <p>등등, 심지어 "내 행복은 생각한 적 없고 그저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고 말한 분도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답이 슬프게 느껴졌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있어 행복은 무엇인가요?</p> <p>(잠시 시간을 준다. 그리고 자율적으로 대답해보고 의견 들어보는 시간 갖는다.)</p> <p>많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아직 말로 표현 못하겠다는 얼굴도 보이네요. 일단! 6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이야기를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시작하겠습니다.</p> <p>(탐방원 야외무대로 이동)</p> <p>안녕하세요, 소개가 늦었습니다. 저는 자연환경해설사 000입니</p>

다. 여러분은 지금 광주호 호수생태원 앞에 와계십니다. 광주시에서 만들고 무탐이 사랑하는 5만 6천 평의 놀이터. 만원의 행복은 이곳에서 시작해 담양 시티투어버스로 광주와 담양을 넘나드는 **원데이 투어**입니다.

저희 운영진은 여러분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산악전문지도사 과정(권혁민, 구민정, 정승호 공통ㄱ)을 수료했으니 혹 신체에 이상이 있거든 언제든 말씀해주시구요, 기타 불편하거나 궁금한 점은 속에 담아두지 마시고 언제든 꺼내주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 귀를 열어 응답하겠습니다.



(무궁화 동산 옆 공간으로 이동)

여행의 첫 번째 순서는 이 무궁화 옆에서 '잠.자.기.'입니다. 진심이나고요? 네! **충분한 수면은 행복하기 위해 꼭 필요**하답니다! 지금부터, 준비해둔 에어매트 위에서 푹~~주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쌀쌀하신 분들은 준비된 은박담요로 따듯하게 감싸시고요.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인사하고 사라진다)

(5분 후 요정님이 **악세사리(요정귀, 화관 등)**를 차고 나타난다)



내 숲에서 잠을 자는 이들이 있군.

(탐방객 한 명 짝으며) 당신의 종족은 뭐죠? 아, 인간인가. 성함은 무엇? ○○○...? 몹시 특이한 이름이네요. 제 이름은 \_\_\_\_\_ (임의대로). 호수 생태원을 사랑하는 요정이죠. 잠깐. 지금 누군가의 속마음이 들리는데....뭐라?? 요정치고 못생겼다고...? 게다가 이름도 이상하다고?? 흥! 나 빠져또!!



(주운영자가 달랜다)

요정님이 서운한가봐요. (탐방객에게) 여러분~ 우리 요정님에게 멋있다고 한 마디만 부탁드립니다!

(탐방객 호응해주면)

요정님 이제 저희 쉬어도 될까요? 맑은 공기 마시며 한 숨 자려고 했거든요.



이 좋은 데까지 와서 잠이라니. 내가 400년 넘게 살았지만 인간만큼 재미없는 종족은 처음이군. 여러분, 그러지 말고... 내 숲에 놀러온 기념으로 보물지도를 하나씩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는지?

(주운영자, 탐방객 보며)



우와! 여러분, 보물지도라니! 어떠세요? 우리 받을까요, 아니면 그냥 다시 잘까요?



(탐방객, 잠 대신 요정님의 선물을 받자고 호응하면, 요정님 나서서) 아니, 누가 맨입으로 준대? 나와 게임을 해서 이기면 주고, 지면 벌칙이야! 어때, 그래도 괜찮겠어?

(탐방객 호응해서 게임을 시작하면 다행이고, 호응하지 않는다면 주운영자가 거들어준다)

좋아. 그럼 시작해보지.

(막대를 사람 수만큼 나눠주고 '자연놀이-균형잡기'를 준비한다)

이 게임은 단순해. 돌아가며 왼쪽 사람의 막대를 잡는 게임인데, 놓친 사람은 탈락!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자가 승리하는 거야!

내가 1등이 되면 보물지도는 없다! 오케이?

(요정님이 1등을 놓치면 놀이가 끝나고 보물지도를 나눠준다)

아마 보물을 찾게 되면, 지금의 선택이 오늘 한 일 중 가장 잘했다는 생각이 들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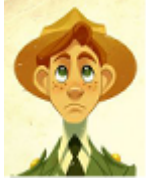
힌트1	힌트2	힌트3	힌트4
Q. 개구리는 이것의 유충이 보이는 곳에 알을 낳는다. 올챙이가 이것의 유충을 먹기 때문이다. 파리목에 속하는 이것은? (정답의 첫번째 글자)	Q. 나무의 제일 위에서 싹을 틔운 새순은 다른 가지들보다 높게 자라며 성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가리켜 뭐라하는가? (정답의 두번째 글자)	Q. 우리말로 호랑이 도롱뇽이란 뜻을 가졌으며, 수명이 최대 25년까지 가는 멸종위기 관심대상인 이 양서류는? (정답의 네번째 글자)	Q. 낙우송과이며 원산지에선 최대 35m까지 자라고, 살아있는 화석이라 불리는 이 나무는? (정답의 다섯번째 글자)
<b>모</b> 기	<b>우</b> 듬지	타이거 <b>살</b> 라만다	메타세쿼 <b>이</b> 아

<보물지도 - 힌트>



문제의 답을 찾아 조합하면 보물이 있는 곳을 알 수 있을 거야.  
그럼 행운을 빌어!

(요정님 사라지고, 주운영자는 탐방객들 보며)



여러분, 힌트를 읽어보셨나요?

(탐방객 저마다 추측해본다. 하지만 답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

답이 뭔지 아직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와 함께 여행을 다  
니다보면 답을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희 무탐이 준  
비한 코스를 따라 이동해볼까요?

(예향연못에 도착해서)

**힌트 1번**에 올챙이 이야기가 나와서 연못 앞으로 모셔왔어요. 지  
난 3월에 이 연못에서 개구리알을 쉽게 볼 수 있었는데... 괜찮으  
시다면 개구리를 한 번 찾아볼까요? (호응유도 - 발견하면 좋지  
만.. 과연?)

못보셔서 아쉬운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오후에 개구리를 제대로  
보시게 될 테니, 기대해주시구요!

그런데 개구리는 혀를 낼름! 낼름!거리며 무얼 먹고 살까요? (대  
부분 대답 가능 - 파리 등 곤충류)

네, 그럼 두번째 질문! 올챙이의 먹이는 무엇일까요? 아는 대로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대답을 들어본다. 십중팔구 명확한 답이 안 나올 듯 - 올챙이는  
수서식물에서 시작해 동충포식까지. 닥치는 대로 먹는 잡식성임)

네, 사실 올챙이가 워낙 잡식성이라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올챙이가 사람한테 아주 좋다고 해요.

(...'설마 정력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음)

지금 상상하시는 그런 쪽이 아니구요, 모기의 유충인 장구벌레를  
먹어치웁니다! 장구벌레가 줄어들면 사람을 물어 간지럽게 만



드는 모기도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겐 없어선 안 되는 동물이죠?

그런데 요새는 개구리 한 마리 보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이 주변엔 꽤 있지만, 도심 아파트 주변에선 보기 힘들잖아요?

이렇게 개구리 보기가 힘든 건 지구가 따뜻해진 것과 관련이 깊다고 해요. 예를 들어, 기온이 올라가면서 이전에 없던 균이 생기고 중남미에선 개구리 75종이 멸종한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산개구리가 겨울잠에서 지나치게 일찍 깨버려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원래 3월 초에 깨던 개구리들이 1월 말에 깨면 어떻겠어요?(호응유도)

네, 먹을 곤충들이 없으니 굶어 죽겠죠..

(다음 장소, 호수생태원 정문 -어떤 나무든 좋음. 그냥 맨눈으로 봤을 때 맨 윗가지가 눈에 보이는 나무-로 이동)

**힌트 2번**을 읽어보면 나무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 있는 (위에서 말한-어떤 나무든 가리키며) 이 친구가 처음 싹을 틔우고 가지가 자라면서, 키가 제일 빨리 자라는 녀석이 있겠죠?

(호응유도)

그 친구는 결국 다른 가지에 따라잡힐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제일 위에서 자랄까요?

(답변 들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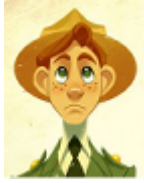
특히 방해하는 게 없는 이상 그 가지는 다른 가지들의 성장을 조절하며 일종의 큰형이나 큰누나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너희 지금 영양분이 부족하니까 그만 커. 나도 참고 있어."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런 친구들을 바로 '우듬지'라고 부릅니다.

생소하지만, 꽤 듣기 좋은 단어죠? 순 우리말이라고 합니다.

"우.듬.지."



※가는 길에 시간이 허락하는 한, 다양한 장소(구절초 동산, 메타세쿼이아 벤치 등)에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면 좋을 듯합니다.

(버스 탑승하러 고고고~~!!)

(버스에 탑승한 뒤)

참고로 이 시티투어 버스는 담양군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2000원을 내고 타야하지만 오늘만큼은 오직 여러분을 위해 무료로 운행하고 있죠! 고마운 버스기사님께 박수한 번 부탁드립니다 될까요?

그럼 창밖의 시골 경치를 구경하며 담양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담양 메타프로방스에 도착해서)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네요. 보물이고 뭐고 일단 배부터 채워야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마련한 장소에서 식사 맛있게 하시고 1시 30분(예시로 적은 시각임)까지 자유롭게 보내신 뒤, 이곳으로 (모이는 장소는, 메타세쿼이아 산책로 입구 매표소 등 상황에 맞게..) 모여주세요!

(식사 후 매표소 앞에서 모임)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어떤 곳이 좋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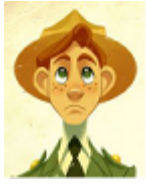
(얘기 들어본 뒤)

이제 앞에 보이는 메타세쿼이아 산책로를 따라 이동해볼 건데요, 원래 입장료 2천원을 내야하지만, 버스비와 마찬가지로! 담양군의 후원으로 무료입장하시겠습니다! 따라란~~♪

(기후변화체험관 앞에서)

여러분은 지금 담양군에서 가장 큰 대나무 바구니를 보고 계십니다!(반응 본다)

이곳은 담양군이 온난화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지은 곳인데요. 기후변화 체험관이라 부르는 이곳에서 시작해, (옥상에 매달린 개



구리 조형물 가리키며) 저 멀리 개구리 보이세요? 거기까지 3개  
관을 돌아보시겠습니다!

(기후변화체험관 2층-2층이 정문임-에서 애기느티와 엄마느티를  
앞에 서서)

이 거대한 나무는 2012년 초강력 태풍인 블라벤으로 피해를 입  
은 200살의 느티나무입니다. 저기 보이는 애기 느티는 엄마가 생  
명을 잃었음에도 홀로 그 위에서 살아남은 기특한 아이예요. 여  
러분은 저 애기 느티와 우리가 얼마나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나  
요?

(탐방객 애기 들어본 뒤)

혹시 온난화가 심해질수록 태풍이 심해진다는 이야기, 들어보셨  
나요? 미국 MIT의 연구결과, 바다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태풍의  
위력도 세졌으며, 이른바 슈퍼태풍의 발생도 잦아졌다고 해요. 그  
리고 그 슈퍼 태풍 중 하나인 블라벤을 만들어낸 건 우리가 사용  
하는 석유, 그리고 우리가 먹는 고기 때문입니다. 석유와 고기가  
블라벤을 만들었다니... 조금 생소하신가요? 먼저 체험관의 전시  
물을 둘러보고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체험관 3층에 있는 기후온난화 관련 전시물을 보고)

체험관 전시물을 통해 읽어보셨다시피, 지구를 뜨뜻하게 데우는  
주범엔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 깊은 땅속에  
있던 석유를 추출해 자동차 연료로 쓰고 있는데요, 그 석유에  
포함된 기체가 바로 '이산화탄소'입니다. 휘발유나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건 지하에서 잠자고 있던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으로 끌  
어내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행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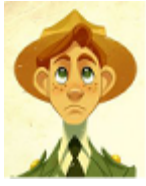
(탐방객 반응 본 뒤)

메탄 이야기는 개구리 생태관을 둘러본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개구리 생태관 타이거살라만다 앞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힛  
트를 쥐야할듯...? 모아놓고 해설하기 어려울 것 같음.)

(3번힌트) 여기 이 친구 몸의 무늬가 꼭 호랑이 같지 않나요??

(개구리 체험관까지 모두 돌아보고 시원한 곳에서)



여러분 개구리 실컷 보셨나요?? (징그럽다는 반응도 있을듯)  
제가 호수생태원 연못에서 온난화 때문에 개구리의 수가 줄어들고 올챙이도 줄었다고 말씀드렸었죠?(호응유도)

방금 만나본 희귀한 양서류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일부는 '아 귀여운 친구들이 사라지지 않게 노력해야겠구나'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징그럽게 생각하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우린 사실 개구리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만해도 공부해보기 전엔 몰랐거든요.

개구리와 같은 양서류는 자연에서 중간 위치에 있어요. 모기나 파리 같은 해충을 잡아먹으며, 뱀, 너구리, 왜가리 같은 큰 동물의 먹이가 되죠. 개구리가 없으면 해충이 늘어나고 나아가 생태계 전체가 위협받게 됩니다.

2020년의 지구는 이 중간 역할을 하는 양서류가 급감하고 있으며, 대부분 인간이 원인입니다.

온난화의 주범 중 메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아까 식사를 하신 뒤 아마 크게든 작게든 트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트림을 하는 동물 중 지구 온난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탐방객, 저마다 답을 말해본다)

네, 답이 벌써 나왔네요. 바로 '소'입니다. 되새김질할 때 많은 양의 메탄이 나온다고 하네요.

(정확히 소 한 종류가 발생시키는 메탄 발생량은 전체의 25%, 연간 1105억 kg / 양과 염소까지 합치면 전체의 37% 만큼의 메탄이 인간이 키우는 가축에 의해 발생)

물론 소가 트림으로 배출하는 메탄가스 자체가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소를 키우기 위해 나무를 베고 목장을 만드는 것이 환경에 더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해요.

이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블라벤으로 엄마를 잃은 아기느티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 아이가 처한 안타까운 상황과 우리들. 그리고 개구리 생태관에서 만나본 멸종 위기에 처한 개구리와 우리들...

보기보다 관련이 있지 않은가요?

탐방원에 도착할 때까지, 한 번 깊이 생각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개구리 체험관에서 이동해 메타세쿼이아 산책로를 걷기 전에)  
이제 담양의 자랑 메타세쿼이아 산책로를 통해 버스까지 이동할 텐데요. 이 나무는 원산지인 중국에선 최대 35m까지 자라고, 공룡이 살던 시대에 화석으로 발견되었는데 그때 모습 그대로라 '살아있는 화석'이라 불린답니다.

자, 그런 메타세쿼이아 길을 걸으며 버스를 향해 출발하실까요?

(버스에서 내린 뒤)

다들 지치셨을 텐데, 여유롭게 탐방원으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탐방원 무등홀에 도착하자 요정님이 맞이한다)

보물은 찾았는지?

(탐방객들 저마다 추리한 결과를 말한다. 요정님, 출력한 사진과 액자를 나누어주며)

눈치 빠른 사람은 이미 알아챘겠지만, 보물은 지금 나눠주는 사진 속에 있지.

(탐방객들, 자신과 일행을 찍은 사진을 구경하는 동안 답을 말한다.)

이 단어는 사전에는 없지만 예부터 써온 순 우리말이야.

"모. 듸. 살. 이"

(탐방객, 다같이 따라해본다)

다 같이 더불어 살아간다는 의미야. 나는 이렇게 생각해.

곁에 있는 사람이 가장 큰 보물이라고.

(탐방객 반응 살핀 뒤)

그럼 다음에 만날 때도 지금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이길 바라며,  
나 \_\_\_\_\_은 이만 사라져주겠어... 잘 지내, 인간!

(요정님 퇴장)



(탐방객들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 주운영자 등장)

보물이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황금이나 보석을 기대했는데 그건 아니네요.

(반응 본다. 다행히 거부반응은 없음)

제가 프로그램 시작할 때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었죠? 누군가는 행복을 '돈'이라고 했고, 또 누군가는 '난 모르겠고 자식이 행복하기만을 바란다.'고도 했죠. 저는 이 행복에 대한 가장 와닿는 답을 찾기 위해 이런 저런 책(「행복의 기원」, 서은국)을 뒤져봤습니다. 그 중 이런 정의가 있더군요.

"행복이란 좋아하는 사람과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전 그 문장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잠시 생각할 시간을 준 뒤)

오늘 '만원의 행복'이라는 프로그램 어떠셨나요?

이 시간을 통해 '나의 행복'은 찾았는지... 그리고 '지구의 행복'과 '나의 행복'은 어떻게 연결되어있는지... 진지하게 한 번 되새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무등산생태탐방원, 자연환경해설사 000였습니다. 감사합니다!